

협회는 국민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 홍보, 교육 사업은 물론 결핵예방접종 백신 및 감염진단 시약의 생산과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번 호에서는 결핵 발견의 최전방에 선 검진팀의 일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핵 발견사업의 최전방

서울지부 사업지원과, 정 주임의 하루



3월 13일

AM 09 : 00

“줄을 서시오,
줄을~~~”

마치 드라마 '허준'에서 임현식이 대사하는 장면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바로, 협회 서울지부 사업지원과에서 결핵 검진 사업을 위해 찾은 서울시내 한 여자 고등학교, 검진 대상은 3학년 전체 410여 명이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일하기에 여고생들 사이에 선 웅성거림도 잦다. 이를 잠재우고 다독여주는 듯한 목청으로 줄을 서라고 외치는 사람은 바로 사업지원과의 정현성 주임이다. 그리고 그의 곁에 손짓 발짓으로 도와주는 기사 홍성로 사원이 함께하고 있다.



“얘들아, 많이 춥지? 조금만 참으면 금방 끝나.”

“다음엔 누구 차례지?”



AM 10 : 30

5초 간격으로 한 명씩, 엑스레이 흉부 촬영대 앞에 학생을 세우고, 센서 누르기가 반복되기 시작한다. 더불어 두 사람의 행동반경과 촬영 시간도 점점 짧아진다. 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을 다독이는 소리는 여전하다. 결핵 검진은 날씨에 구애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시선조차 꺼리는 현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은 때론 삼촌의 입장으로, 또 큰 오빠의 입장과 자식의 입장을 자주 대변한다. 오늘처럼 여고생 검진이 있는 날이면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게 마련. 삼촌 같은 심정으로 어르고 타이르듯 검진대로 발 빠르게 향하도록 유도한다.



AM 12 : 00

그 많던 학생들이 선 줄의 끝이 보이길 시작하자, 데이터 정리가 서서히 시작된다. 잘못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이 작업을 맡는 것은 보통 대상 학교의 학생이다. 일손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학생 대표가 학생 순번이 제대로 됐는지, 이름이 잘못되지 않는지 훑어보는 작업이 완료되어야 검진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매섭게 불던 찬바람도 시간이 정오를 향해 달려가자 다소 주춤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희색이 돌기 시작한다. 드디어 오늘 검진 일정의 반이 끝났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진심어린 말을 땀을 흘리며 건네고, 잠시 의자에도 기대어 본다. 하지만 이 순간도 잠시. 서둘러 점심을 먹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야 한다.

다음 행선지는 지난해 12월경 결핵이 발병하였던 대학 근처이며,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을 위하여 접촉자 추구 2차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또 다시 “줄을 서시오, 줄을~~~”이라고 외치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을 준비도 시작된다. †

“북한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에 꼭 참여하고자” 사업지원과 정현성 주임 INTERVIEW



그는 매일같이 X-선 발생장치가 장착된 검진버스에 오른다. 버스 안에서는 어김없이 동행 기사 홍성로 사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13일에도 그랬다. 그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지, 현장을 함께 따라가 스케치해 보았다.

사업지원과 정 주임의 하루는 검진버스에서 시작되어 검진버스에서 끝이 난다. 5초 간격으로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기에 현장 인터뷰조차 허용치 않은 채. 다음은 삶의 황금기인 30대 대부분의 시간을 협회 검진팀에 몸을 담고 근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전하는 그와의 미니 인터뷰.

사업지원과에서 하는 일

방사선과를 졸업한 방사선사로써 2001년에 경기 지부 검진과(현 사업지원과)에 입사, 2006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지부로 발령받아 검진 및 검진결과 통보 등의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어려운 점

주로 야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날씨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며, 수시로 변하는 현장 상황 탓에 임기응변이 많이 따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어려운 점입니다.

기억에 남는 일

약 10여 년간 현장에서 검진업무를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장애시설, 교정시설, 새터민 등)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일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핵 검진 현장에서 느끼는 점

예전에 비해 젊은 층의 경우 결핵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심각성을 몰라서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결핵 발견의 최전방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검진팀 업무 또한 서비스 업무의 일환이기에 항상 친절하고 친근감 있게 검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협회의 검진 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결핵의 현 주소와 그 대안

과거에 비해 결핵유병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는 결핵이 꾸준히 발생하는 편입니다. 결핵 환자수와 감염률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 국민들의 결핵 위험인식 부족이 아쉽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협회 검진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각오

결핵 검진 업무는 대국민 업무이다 보니 어려운 일들이 많고,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핵 환자를 발견하는 보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 가까운 미래에 남, 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남한의 50~60년대 결핵 상황인 북한에 방문하여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일을 꼭 해 보고 싶습니다. ♪